

2021년 3월 5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파월 발언으로 국채금리 상승과 지수 하락

파월, “인플레이 역사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높은 인플레이 허용 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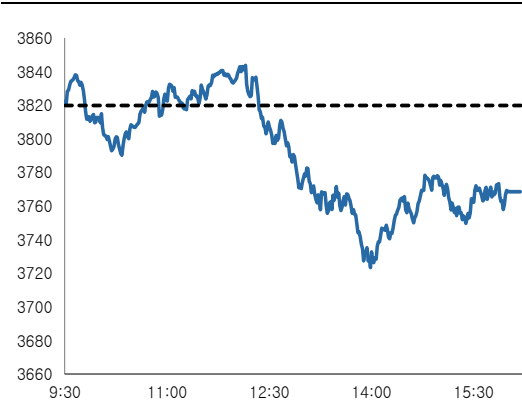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①중국 시보금리 ②국제유가 ③파월 발언

미 증시는 장 초반 중국의 시보금리가 금리인상 우려 속 급등하자 낙폭을 확대 했지만 국제유가가 OPEC+ 회담에서 감산을 유지한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강세를 보이자 지수 전반에 걸쳐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전환 성공 그러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후 나스닥이 한 때 3%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 확대. 다만, 장 마감 앞두고 추가 부양책 기대와 국채금리 안정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다우 -1.11%, 나스닥 -2.11%, S&P500 -1.34%, 러셀 2000 -2.76%)

미 증시는 ①중국 시보금리 ②국제유가 ③파월 발언 등으로 변화. 먼저 시보금리인데 중국의 1 일 시보금리가 45.5bp 나 급등하고 1 주일 시보금리 또한 27.1bp 나 급등. 5 일(금) 전인데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재정적자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동성 흡수 우려가 확산 된데 따른 것으로 추정.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이어 시보금리 상승은 아시아 시장에 이어 미 증시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매물 출회 확산 요인. 그러나 국제유가가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을 4 월에도 유지한다는 소식에 이어 OPEC+ 회담에서 예상과 달리 감산 규모 축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유입되며 급등하자 주식 전반에 걸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

그러나 파월 연준의장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발언과 금리에 대한 언급 이후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지수는 나스닥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급락. 파월은 “경제가 재개 되면 인플레이 상승은 예상되나 높은 인플레이션은 매우 나쁜 상황이다” 라고 주장. 특히 “인플레이션의 역사는 잘 알고 있으며 너무 높은 인플레이는 허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 이후 미국 10 년물 국채금리가 1.55%를 상회하자 나스닥이 한 때 3% 넘게 급락. 특히 “연준은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 이라고 주장했지만 “금리 급등은 주목할 만하며 눈길을 끈다” 라고 언급해 그동안 금리 상승이 경제 정상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과 달리 인플레이와 관련된 발언을 통해 과거와 차이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추정. 그렇지만 장 마감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일부 축소되는 경향. 특히 척 슈머 등 민주당 지도부가 추가 부양책으로 미국 경제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3,043.49	-1.28	홍콩항셍	29,236.79	-2.15
KOSDAQ	926.20	-0.49	영국	6,650.88	-0.37
DOW	30,924.14	-1.11	독일	14,056.34	-0.17
NASDAQ	12,723.47	-2.11	프랑스	5,830.65	+0.01
S&P 500	3,768.47	-1.34	스페인	8,354.00	+0.30
상하이종합	3,503.49	-2.05	그리스	817.24	+0.26
일본	28,930.11	-2.13	이탈리아	23,093.10	+0.2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밸류 부담 높은 종목 중심 급락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자 테슬라(-4.86%)가 한 때 8% 넘게 급락하는 등 전기차 관련 업종은 하락했다(니오 -5.42%, 샤오펑 -2.23%). 쿼텀스케이프(-9.34%), 앨버말(-3.73%)과 글로벌 리튬 배터리 ETF(LIT)도 6.80% 하락했다. 퍼스트솔라(-4.46%), 진코솔라(-11.09%) 등 태양광, 티레이(-10.44%), 오로라 캐나비스(-6.12%) 등 대마초 테마주들의 낙폭이 컸다.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엑손 모빌(+3.87%), 코노코필립스(+3.65%) 등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나 비철 금속 가격 급락 여파로 프리포트맥모란(-6.57%) 등 광산 업종, US스틸(-6.56%) 등 철강 업종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일 가이던스 상향 조정했던 마이크론(-5.36%)도 금리 상승 여파로 하락했으며 브로드컴(-4.20%), Nvidia(-3.39%) 등도 급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84%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마벨 테크(-12.00%)가 실적 발표에서 여타 반도체 업체와 달리 가이던스를 예상과 부합된 결과를 내놓자 급락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디즈니(-2.20%)는 연말까지 오프라인 소매점의 30%를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하락했다.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에나(-3.34%)는 코로나 수혜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 출발했으나 지수 전반의 약세로 하락했다. 사이버 보안 회사인 옥타(-6.22%)는 양호한 실적 불구 단기적인 수익 개선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하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33%	대형 가치주 ETF(IVE)	-1.02%
에너지섹터 ETF(OIH)	+1.44%	중형 가치주 ETF(IWS)	-1.63%
소매업체 ETF(XRT)	-1.92%	소형 가치주 ETF(IWN)	-1.70%
금융섹터 ETF(XLF)	-1.14%	대형 성장주 ETF(VUG)	-1.71%
기술섹터 ETF(XLK)	-2.21%	중형 성장주 ETF(IWP)	-3.1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3.81%	소형 성장주 ETF(IWO)	-3.91%
인터넷업체 ETF(FDN)	-2.32%	배당주 ETF(DVY)	-0.93%
리츠업체 ETF(XLRE)	-0.74%	신흥국 고배당 ETF(DEM)	-1.34%
주택건설업체 ETF(XHB)	-2.2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27%
바이오섹터 ETF(IBB)	-2.41%	미국 국채 ETF(IEF)	-0.50%
헬스케어 ETF(XLV)	-1.34%	하이일드 ETF(JNK)	-0.46%
곡물 ETF(DBA)	-0.29%	물가연동채 ETF(TIP)	-0.38%
반도체 ETF(SMH)	-4.85%	Long/short ETF(BTAL)	-0.30%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81.76	+2.47%	+3.55%	+21.29%
소재	460.88	-2.06%	-1.39%	+0.90%
산업재	769.69	-1.61%	-0.35%	+4.02%
경기소비재	1,248.92	-2.02%	-2.96%	-8.19%
필수소비재	647.50	-0.53%	-1.92%	-2.63%
헬스케어	1,289.06	-1.33%	-2.49%	-3.76%
금융	548.17	-1.21%	+0.32%	+9.45%
IT	2,218.58	-2.26%	-2.68%	-5.54%
커뮤니케이션	232.22	+0.03%	+0.09%	+0.59%
유틸리티	296.87	-0.17%	-1.36%	-6.97%
부동산	226.50	-0.77%	-4.25%	-3.3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중국 전인대 개막식 후 방향성 결정 될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1.82% MSCI 신흥 지수 ETF 는 2.33%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30.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 약세로 하락 출발 후 중국 시보금리가 급등하자 낙폭을 재차 확대하며 한 때 2%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했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 등으로 금리가 급등하고 밸류 부담이 컸던 기술주 및 테마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된 점은 부담이다. 특히 채권, 외환, 상품시장에 이어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점은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을 높여 한국 증시는 0.5%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전인대 개막식에서 있을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올해 GDP 성장률은 물론 경제 운영 방향, 자본시장 개혁, 14 차 5 개년 계획(2021~2025 년)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부분과 함께 언급 될 재정적자 등 부채비율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난 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으로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GDP 대비 246.5%→270.1%). 이를 감안 리커창 총리는 재정적자 목표(GDP 대비 8.6%→6%)를 크게 줄이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관련한 발언에서 강도 높은 언급을 할 경우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 이슈가 재부각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장 초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소폭 하락 출발 후 리커창 총리의 발언 결과로 방향성이 결정 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고용지표 개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주(73.6 만건)을 소폭 상회한 74.5 만건을 기록했으나 예상치인 76 만건은 하회했다. 그 전주 텍사스 지역 대규모 겨울 폭풍 등으로 감소세가 뚜렷 했는데 이번주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월 미국 공장 주문은 지난 달 발표치(mom +1.6%)나 예상(mom +2.0%)를 상회한 전월 대비 2.6% 증가했다. 운송을 제외한 수주도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

2 월 대량 해고 지수는 지난달 7 만 9,552 명보다 급감한 3 만 4,531 명이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급등, 달러 강세, 국채금리 상승

국제유가는 OPEC+ 정례 회담에서 참석자들이 감산 규모 축소를 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했다. 물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소폭 증산했으나 계절적인 수요 특수성으로 예외로 인정 받았다는 점, 그리고 3 월까지로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적 감산이 4 월까지 연장 되었다는 점이 상승폭 확대 요 인이었다.

달러화는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이 될 경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금리 상승 요인에 대해 기존의 경제 정상화 과정 보다는 인플레 이슈를 언급 한 점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여기에 금리 상승 불구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시사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줬다.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등도 달러 대비 약세폭을 확대 했으며, 역외 위안화 환율 또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 또한 약세였다.

국채금리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언급 후 10 년물 국채 한 때 1.55%를 상회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상승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 했으나 뚜렷한 조치를 시사하지 않았으며, 과거 경제 정상화 과정 속 금리 상승은 당연하다는 언급에서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문구 사용을 하는 등 변화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장 마감 앞두고 안정을 찾았다.

금은 달러 강세로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특히 니켈은 이틀 연속 7%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두, 옥수수 등 곡물은 달러 강세 및 주간 수출 판매 보고서를 통해 옥수수와 대두의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79%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3.83	+4.16	+0.47	Dollar Index	91.615	+0.73	+1.64
브렌트유	66.74	+4.17	+0.95	EUR/USD	1.1972	-0.75	-1.67
금	1,700.70	-0.88	-4.21	USD/JPY	107.95	+0.88	+1.64
은	25.461	-3.51	-8.03	GBP/USD	1.3895	-0.42	-0.86
알루미늄	2,153.50	-2.11	-3.65	USD/CHF	0.9293	+1.02	+2.71
전기동	8,907.50	-2.13	-5.37	AUD/USD	0.7724	-0.66	-1.89
아연	2,748.50	-1.38	-4.90	USD/CAD	1.2669	+0.11	+0.52
옥수수	532.50	-0.51	-3.14	USD/BRL	5.6688	+0.81	+2.70
밀	651.00	-0.76	-3.66	USD/CNH	6.4916	+0.22	+0.04
대두	1,410.50	+0.21	+0.21	USD/KRW	1125.10	+0.43	+1.16
커피	132.15	-0.49	-5.64	USD/KRW NDF1M	1130.44	+0.42	+0.97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540	+5.89	+1.98	스페인	0.377	-1.00	-9.60
한국	1.967	+1.70	+11.40	포르투갈	0.272	-0.60	-9.10
일본	0.132	+1.30	-2.10	그리스	0.960	-2.90	-16.40
독일	-0.311	-2.30	-7.90	이탈리아	0.739	-1.50	-5.9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